제주4·3 수형인 재심 '운명의 시간'

일반재판 '특별재심' 이번 주 개시 여부 판가름
검찰, 군사재판 '직권재심'도 이달 내 1차 청구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군사재판 '직권재심'은 첫 번째 청구를 코 앞에 뒀고, 일반재판 '특별재심'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이달 중 '1차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한다.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인(1931명)을 우선적으로 분류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대상자가 많은 점을 감안, 한번에 청구할 수 있는 인원 규모를 제주지방법원과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20명대'로 조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4·3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수형인은 생존 여부부터 유족 존재 유무까지 확인해야 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나마 자료가 정리돼 있는 희생자 수형인을 위주로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재판 수형인 30여명이 청구한 '특별재심'도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세 차례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재심 청구의 경우는 미군정이 진행한 재판을 대한민국이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미국은 주권(재판)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안을 법원이 뒤집을 경우 '주권 면제'는 물론 외교적 분쟁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정 재판을 받은 지방은 제주가 유일하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반면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당시 미국의 점령지였던 한반도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다섯 번째 재판부터는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에 권한을 이양했다"며 "4·3특별법에는 재심 청구를 제주지법으로 하게 돼 있다. 미군정이 내린 판결이라도 (모든 사건이) 4·3의 시발점인 1947년 3월 1일 이후 일어났기 때문에 제주지법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코로나 확진 하루만에 한자리대로…

19일 오후 5시 기준 3명
백신 3차 접종률 44.5%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 자리대로 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누적 확진자 수는 4919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만에 다시 한자리대로 감소했다. 전날에는 16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가 1명,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가 1명이며, 나머지 1명의 감염 경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 84.4%, 3차 44.5%를 기록 중이다. 이상민기자

차 태워줬더니…

공무원 준강제추행 재판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얻어 탄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귀가를 위해 B씨의 차량을 얻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헤어지자는 내연녀 폭행
3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헤어지려는 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법원 선고 직전 도주 행각까지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26일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의 직장 앞에서 "너의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8시간 동안 강제로 끌고다니고,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2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지만, 몇 달 후 유부녀인 B씨가 만남에 부담을 느껴 헤어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영평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앞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19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에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파도에 밀려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강희만기자

여성 손목잡고 "아기야"
출동 경찰 때린 60대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50분쯤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아기야"라고 부르며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날 한 미용실에 침입해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소지품으로 경찰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신구간 앞둔 제주 '가스사고 주의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신구간(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을 맞아 '이사철 가스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총 27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22명이 다치고, 1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월별로 보면 신구간이 겹친 12월부터 1월까지가 29.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주택 및 음식점에서 70%(19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신구간 이사 과정에서 가스 누설 등의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유관기관 공조 및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 가스판매점에 문의한 뒤 실시하고, 호스 막음 조치 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방범 CCTV 675대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40억원을 투입해 우범지역, 안전 취약지역 등 150곳에 675대의 방범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각 읍·면·동과 제주경찰청이 신청한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평가, 유동 인구 조사, 상가업소 정보 등을 토대로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관제센터 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원,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영상 제공 확대에 1억원,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사업에 3억원, 노후 CCTV 보강 구축에 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제주도는 곳곳에 CCTV 1만4240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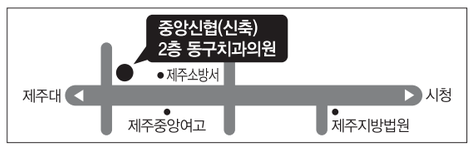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엠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뿌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탱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